



보도시점 2024. 1. 24.(수) 14:00 (2024. 1. 25.(목) 조간)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도 안내받으세요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

- ◆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24일(수)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하였음
- ◆ 금융위와 고용부가 함께 마련한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 ① (연계대상) 희망하는 경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누구나 고용 지원제도로 연계·안내하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고용지원이 필요한 분들 에게는 필수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 (약 3천명 → 약 26만명)
 - ② (연계채널) 금융·고용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온라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 설치를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 제공 (10개 이상의 출장소 등 신설)
 - ③ (맞춤연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구·이직희망자, 청년, 구직단념청년)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1개 → 5개 제도)
 - ④ (환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 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 (신규 약 20만명)
-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 향후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임

1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1월 24일(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 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하였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일시 : 2024.1.24.(수) 13:50~14:30
- 장소 : 하남고용복지+센터, 하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경기도 하남)
- 참석자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
【담당기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2 참석자 말씀 주요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하면서, 부처간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 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기로 하였다.

* 채무조정 이용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사업 이용대상에 既 포함되어 있음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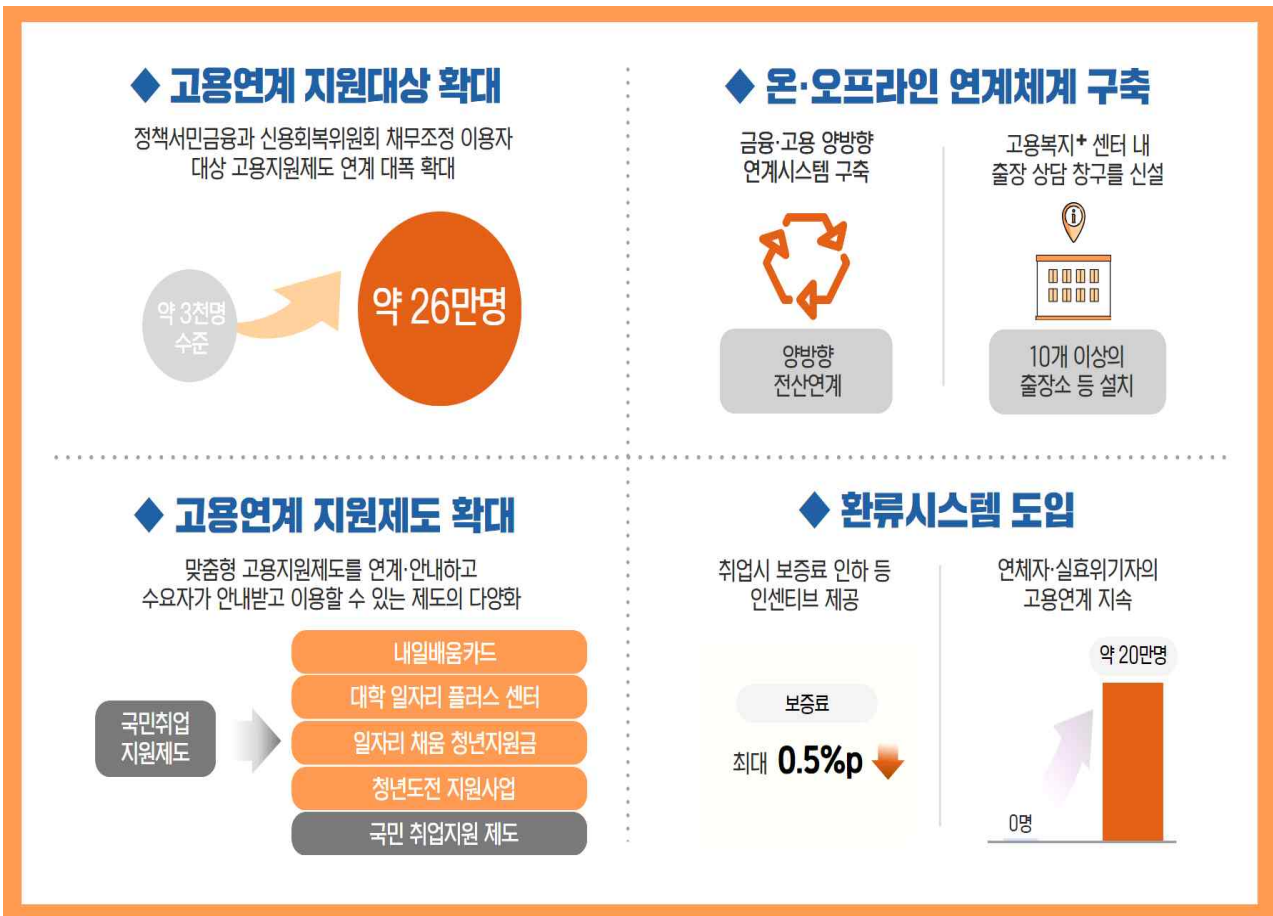
*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방안]

햇살론 유스 : 보증료 0.5%p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보증료 0.1%p ↓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요약】



4 향후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 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금융·고용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별첨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별첨2]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자료

[별첨3]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별첨4] 금융·고용 지원제도

[별첨5]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이용 및 상담사례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성미라 (02-2100-2611) 김경문 (02-2100-2612) 임두봉 (02-2100-261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담당자	사무관	양민호 (044-202-7196)
			사무관	김정탁 (044-202-7193) 이수경 (044-202-7191)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담당자	사무관	유능재 (044-202-733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윤영귀 (044-202-7307)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7318)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담당자	사무관	진정하 (044-202-7714)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효율화추진단	책임자	단 장	박장구 (02-2128-8305)
		담당자	팀 장	박지훈 (02-2128-818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이상우 (02-750-1071)
		담당자	수석조사역	도현호 (02-750-1075)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서비스실	책임자	실 장	임종훈 (043-870-8400)
		담당자	팀 장	김종범 (043-870-8840)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과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각각 찾아오셨던 분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해보자고 손을 잡는 뜻깊은 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융과 고용의 연계지원에 대해

값진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상담센터 직원분들과 이용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민금융정책의 새 패러다임 >

금융위원회는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보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자활 지원은
금융위원회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서민금융과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처럼,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지원이 시작입니다.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쏠 과정을 새롭게 정비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용지원제도와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계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여,
직업이 없으시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금융이용자분들에게
고용지원 사업들을 연계·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금융·고용 간 연계채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프라인에선 센터 간 출장소 설치와 인력 배치를 통해
이용자가 어느 센터를 방문하든
금융과 고용을 한꺼번에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용자분들에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계된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신 분에게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보증료를 인하해드리고,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지속적으로 재기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옆자리에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시지만,
이번 협조와 공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씀 >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님,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과 함께 **부처간 협업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그동안
 농촌 일자리 문제부터 건전한 온라인 채용시장 형성,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22.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23.1월, 농림축산식품부)
 ▲ 건설업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23.9월, 국토교통부)
 ▲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 강화('23.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저는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분들께
고용과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그 첫 단계로써
고용·금융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제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첫째, 서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심층상담을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면서,
* 서민금융이용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허용
- 직업훈련을 희망한다면 직업훈련비용 자부담을 면제*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참여시 훈련비 자부담 면제(15~55% → 0%)
- 둘째, 청년분들은 최근의 채용트렌드에 맞춰
일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해 드리고,

- **구직단념청년 등에게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예)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하여 구직의욕 고취

□ **마지막으로,**

고용-금융간 윈스톱 복합상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7개소에서 **올 상반기 내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 연계·협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기관간 협업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지속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고 행동**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마무리 말씀 >

- 그간 우리부는 복지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위기청소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하여 자립준비전담기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부처 간 협업체제를 토대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정책을 세심히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 더 많은 국민분들께 통합적인 고용-금융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고용-금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사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2024. 1. 24.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목 차

I. 그간의 복합지원 현황	1
II. 운영상 아쉬운 점	2
III. 제도개선 방안	3
1. 연계 지원대상 확대	4
2.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5
3. 연계 지원제도 확대	6
4. 환류시스템 도입	7
IV. 기대효과	8
V. 향후 추진계획	9

I. 그간의 복합지원 현황

①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17년 취업지원 및 복지연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0년부터 복지연계 업무 시작

○ (고용) 서금원은 구직·이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사가 취업지원(구직등록, 취업알선)을 하거나 고용부 제도와 연계

* 취업지원(건) : ('19) 14,577 → ('20) 9,094 → ('21) 6,933 → ('22) 7,004 → ('23) 11,973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23.5~12월) : 3,218명 연계 → 참여확정 153명(약 5%)

- 신복위는 고용지원 또는 연계 없이 서금원 또는 고용복지+센터로 안내

○ (복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서금원·신복위 간 연계지원 의뢰*

* 복지연계(건) : 서금원 ('19) 805 → ('20) 218 → ('21) 1,296 → ('22) 2,369 → ('23) 14,315
신복위 ('20.12월) 418 → ('21) 18,298 → ('22) 21,303 → ('23) 28,785

- 유관기관과 비교시 서금원과 신복위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연계 의뢰 건수가 많은 편이며,

- 지자체에서도 서금원·신복위에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을 요청 중

② 고용지원 등 대상은 센터 방문자와 대면 상담시 희망자 대상

○ 다만, 소액생계비대출('23.3.27일 출시)의 경우에만 대출이용 前 고용지원, 복지연계 등을 위한 상담을 필수로 거치도록 운영 중

* (소액생계대출 이용 프로세스) 센터방문 예약 → **복합상담** → 대출상담 → 대출시행

※ 소액생계비대출 복합상담 실적('23.12월말 기준)

(복지연계) 13,057건, (취업지원) 7,501건, (채무조정 연계) 35,749건,
(휴면예금 지급) 23,479건, (불사금신고 연계) 10,191건, (채무자대리인 안내) 79,626건

II. 운영상 아쉬운 점

① 금융·고용 간 연계시스템이 없어 복합지원이 제한적

- **(온라인 지원)** 고용분야의 경우 '23.5월부터 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간 연계가 시작되었으나, 연계 시스템은 부재

* 복지분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서금원·신복위와 지자체 간 연계 중

- **(오프라인 지원)** 금융·고용지원 각 센터에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업무 위주로만 상담이 이루어져 복합지원을 위한 상담은 한계

* 현재 50개 서민금융센터 중 7개 센터만 고용복지+센터에 입점하여 상담 제공 중이며, 서민금융센터에는 연계 분야 관련 파견인력이 전무

② 금융·고용 각 연계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체감 효과 저조

- 고용노동부가 아닌 서금원 소속의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함에 따라 고용지원제도* 연계에 한계가 있고 체감 효과**도 저조

* 고용지원제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23.5월~)

** ('23.12월 기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고용제도 연계자(3,218명) 비중은 0.46%

③ 금융·고용지원 제도 간 별도의 환류시스템 부재

- 정책서민금융 이용시 일회성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른 체계적 지원에 한계

-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금융교육 이수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 중

III. 제도개선 방안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확대

고용지원제도 필수 안내대상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소득·비정규근로자** 등으로 확대

연계체계
구축

금융·고용 제도 간 **양방향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연계**

연계제도
확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고용제도를 확대**

환류시스템
도입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체자·실효위기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재연계**

【추진과제】

1. 연계 지원대상 확대

- 1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2.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 1 금융·고용 간 양방향 지원시스템 연계
- 2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

3. 연계 지원제도 확대

- 1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 확대
- 2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4. 환류시스템 도입

- 1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부여
- 2 정책서민금융 연체자·채무조정 실효위기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재연계

1

연계 지원대상 확대

1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 (현행)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이 제한적

○ 서금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복합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 햇살론 등 여타 상품의 경우 센터 방문시 제한적으로 지원 중*

* 센터방문시 본인의 의사 또는 상담직원의 재량에 따라 복합상담 진행

○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복지연계만 지원 중*

* 본인의 의사 또는 상담직원의 재량에 따라 복합상담 진행

□ (개선)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고용연계 지원 확대

○ 신복위도 고용연계 업무를 시작하여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시 고용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

* 채무조정 이용자는 우선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고용연계 지원 예정

※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확대(3천명 → 26만명)

- (현행)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고용제도 연계자 연간 3천명 지원

- (개선)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 비정규직근로자 등 연간 26만명으로 확대

○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향후 플랫폼(24.6월 구축 예정)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연계 신청이 가능

1 금융·고용 간 양방향 지원시스템 연계

- (현행)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를 금융·고용지원 제도로 상호 연계하기 위한 채널이 부재
 - * 복지연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양방향 연계 중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일방향'(서금원 →고용부), '수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 없이 구·이직희망자에게 서금원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안내
- (개선) 서금원 및 신복위의 고용부 워크플러스(WorkPlus)* 참여 등을 통해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 * 지자체 복지지원팀, 일자리센터 등이 참여하여 고용복지 서비스 의뢰연계하는 시스템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고용지원제도로,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로 상호 연계

2 금융·고용 복합지원 상담창구 마련

- (현행) 금융·고용 각 센터가 분절되어 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개별 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고용복지+센터 102개
- (개선) 고용복지+센터 내 금융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상담사 교육을 통한 상담의 품질 개선도 병행
 - 고용복지+센터 內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주 1~2회 출장 상담을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 제공
 -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상호 제공*하여 연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상담직원 등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온라인 교육 우선 추진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면교육도 추진)

1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 확대

- (현행) 연계 고용지원제도가 한정적이며, 연계 체감효과도 저조
 -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한되어 있으며,
 - * 지원대상에게 취업활동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년 근속시 성공수당 150만원 지원
 - 요건심사 또는 선발을 통해 운영하거나 특정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연계 효과성이 높지 않음
 - *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개선) 서금원·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포함**
 - * 신청자에게 1인당 기본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내 지원(훈련비의 45~85%)
 - ** 신용회복지원자는 既 포함되어 있어 제도 연계를 통해 참여 제고

2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 (현행)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특화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가 미흡
- (개선)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을 일반적인 고용지원지원제도 뿐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와의 연계
 - 대학생, 졸업생 등 구직 청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
 - *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상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등) 제공
 - 제조업 등 빈일자리에 종 취업 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최대 200만원) 지급을 안내
 - 구직단념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
 - * 만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 대상, 단기 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원 지원, 이수 후 6개월이내 취업, 취업후 3개월 근속시 50만원 취업인센티브 지급

1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부여

- (현행) 금융교육 이수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 중이나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개선) 고용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신용평가시 우대하고 보증료 인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한 취업자(11.4만명) 중 만 34세 이하 청년 비중 76%

- 서금원 신용평가모형에 고용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여부를 평가요소로 포함하여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

*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한도 확대 가능

-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를 통해 금리 혜택 부여

* ① (햇살론유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시 보증료 0.5%p 인하

② (기타 보증부대출상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시 보증료 0.1%p 인하

2 연체자·실효위기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재연계

- (현행) 일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만 대출 당시 일회성으로 고용연계 중으로, 이용자의 상황변화에 따른 지원에 한계*

* 서금원 보증부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대출 이후 서금원 대위변제 전까지 금융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이용자 상황 변화에 따른 복합상담 지원에 한계

- (개선) 정책서민금융 연체자 및 채무조정 실효위기자(변제금 3회 미납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

* 정책서민금융 연체자, 채무조정 실효위기자 약 20만명 지원 예정

IV. 기대효과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지원 강화



2 금융·고용지원제도 간 양방향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연계



어ape리안



3 연계 고용지원제도 확대 4 환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 체감도 향상



V. 향후 계획

□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

【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연계 지원대상 확대		
①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업무프로세스 마련 및 상담직원 교육	'24.6월~
2.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① 금융·고용 간 양방향 지원시스템 연계	연계시스템 구축	'24.下
②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	교육프로그램 마련 상담소 협의 및 창구 마련	'24.3월~
3. 연계 지원제도 확대		
①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 확대	고용부 고시 개정	'24.3월~
②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업무프로세스 마련	'24.6월~
4. 환류시스템 도입		
①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부여	쏠업권 전산개발 및 CSS모형 반영	'24.下 * 햇살론유스 보증료 인하 우선 추진('24.3월)
② 연체자·실효위기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재연계	업무프로세스 마련 및 상담직원 교육	'24.6월~



금융의 어려움을
해소드립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연계 금융 제도

연계 고용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

1.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

2. 햇살론뱅크

제도권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 상품

3. 햇살론 유스

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

4. 햇살론 15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 대출 상품

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대상 100%보증
고금리 대안상품

6. 소액생계비 대출

대부업 조차 이용이 불가능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

구·이직자
고용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생계지원을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활동의무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2. 내일배움카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1인당 3~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과정 수강자 대상 훈련장려금 지급

채무조정제도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 대상 지원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31~89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 대상 지원

3.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지원

청년특화
고용지원제도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
·연계하는 청년 진화 고용서비스 지원

취업상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경력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2.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완화 지원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

3.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 등을 발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구직단념 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 센터 이용 및 상담사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사례 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했던 A씨는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생계비 용도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난 8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소액생계비대출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자 상담직원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주어 참여하게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고용연계까지 해주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되었다”며, “고용지원제도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안내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사례 ②】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던 청년 B씨는 햇살론유스 300만원을 대출받아 급한 생계자금을 해결하였다. 이후 우연한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리플렛을 보고 신청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B씨는 “현재 국민취업제도 참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햇살론유스를 받을 때도 고용지원제도를 같이 안내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취업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햇살론유스처럼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할 때 고용지원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사례 ③】

대학 재학 중 학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던 C씨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기에는 막막하여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다. 채무조정 상담을 받다가 현재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자 상담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상담받아보라고 했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먼 곳에 위치한 탓에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C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상담을 받으러 또 시간을 내서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채무조정과 고용지원제도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복지+센터 이용자 사례 ④】

생계급여수급자인 D씨는 배우자 간병을 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D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하여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하여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 줄 몰라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D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과 같이 생활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라며, “고용지원제도 뿐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사례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E씨는 센터에서 많은 이용자분들을 만나다보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E씨는 “이런 시기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드리며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나 취업경험 같은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용자분들이 본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까봐 지원을 해보지도 않고 단념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다”며, “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지원해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상담을 하다보면 소액생계비대출 외에도 고용지원제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을 느낀다며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해드릴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복지+센터 상담사 사례 ②】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F씨는 여러 방문자분들을 상담 하다보면 취업의지가 있지만 부족한 정보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취업진로를 설계하고 참여수당을 지급해드리며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도 해드리고 있다. 다만,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내담자에게는 같은 센터 내 서민금융 상담사가 없으면 멀리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안내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A씨는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무직자나 불안정근로자분들이 상당수라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신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 아쉬웠다”며, “서민금융과 같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①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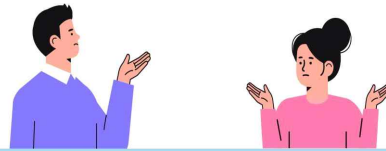


②

서민, 취약계층이 불안정한 소득과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융-고용을 윈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해서 취업하고 싶어요”

“생계부담을 덜 수 있으면 취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③

금융·고용 복합지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
- 고용복지+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해도 연계·안내
- 이용자 상황에 따라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형 지원
-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 인센티브 부여



④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끝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